

분석보고서

2024년 부천시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 08.



< 목 차 >

1장 서론	1
1절 조사 배경	1
2절 조사 목적·내용	2
1. 조사 목적	2
2. 조사 내용	3
3절 조사·방법	4
2장 설문조사 결과	5
1절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5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6
1) 근속	6
2) 근로계약	7
3) 근무시간	9
4) 휴게 실태	10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11
6) 인격적 대우	20
7) 임금 지급	21
8) 기타 및 사회보험	22
9)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3.3 노동자’ 여부)	24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26
2절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29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29
2. 가맹점 운영 실태	30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30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31
3) 매출 현황	33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35
5) 가맹점 본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38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41
1절 요약	41
2절 정책 제언	42

< 표 차례 >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2년)	3
[표 2-1] 조사 참여자 세부 현황	5
[표 2-2] 세부 변수별 근속 평균	6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7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7
[표 2-5] 편의점 브랜드별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실태	8
[표 2-6]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로시간	10
[표 2-7] 휴게시간 실태 (전체)	11
[표 2-8] 휴게시간 실태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만)	11
[표 2-9]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액	12
[표 2-10]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13
[표 2-11] 세부 변수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14
[표 2-12]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15
[표 2-13] 세부 변수별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15
[표 2-14] 편의점 브랜드별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16
[표 2-15]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17
[표 2-16] 편의점 브랜드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	18
[표 2-17] 퇴직금 수령 여부	19
[표 2-18] 세부 변수별 퇴직금 실태(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19
[표 2-19] 폭언 · 폭력 실태	20
[표 2-20] 성희롱 실태	20
[표 2-21] 임금 지급 실태	21
[표 2-22] 세부 변수별 마감 후 차액 처리	21
[표 2-23] 세부 변수별 추가노동 경험 유무	22
[표 2-24]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24
[표 2-25] 세부 변수별 3.3 노동자 여부	25
[표 2-26] 편의점 브랜드별 3.3 노동자 여부	26
[표 2-27] 임금 및 노동조건 만족도	26
[표 2-28] 세부 변수별 임금 및 노동조건 만족도(5점 척도)	27

[표 2-29] 세부 변수별 투잡 실태	28
[표 2-30] 조사 참여 점포 현황	29
[표 2-31] 세부 변수별 단시간 노동자 수	31
[표 2-32] 프랜차이즈 업체별 월 평균 휴무일	32
[표 2-33]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33
[표 2-34] 매출 감소 대응	34
[표 2-35]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	35
[표 2-36] 세부 변수별 로열티 수준 인식(5점 척도)	38
[표 2-37]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사항	38
[표 2-38]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39

< 그림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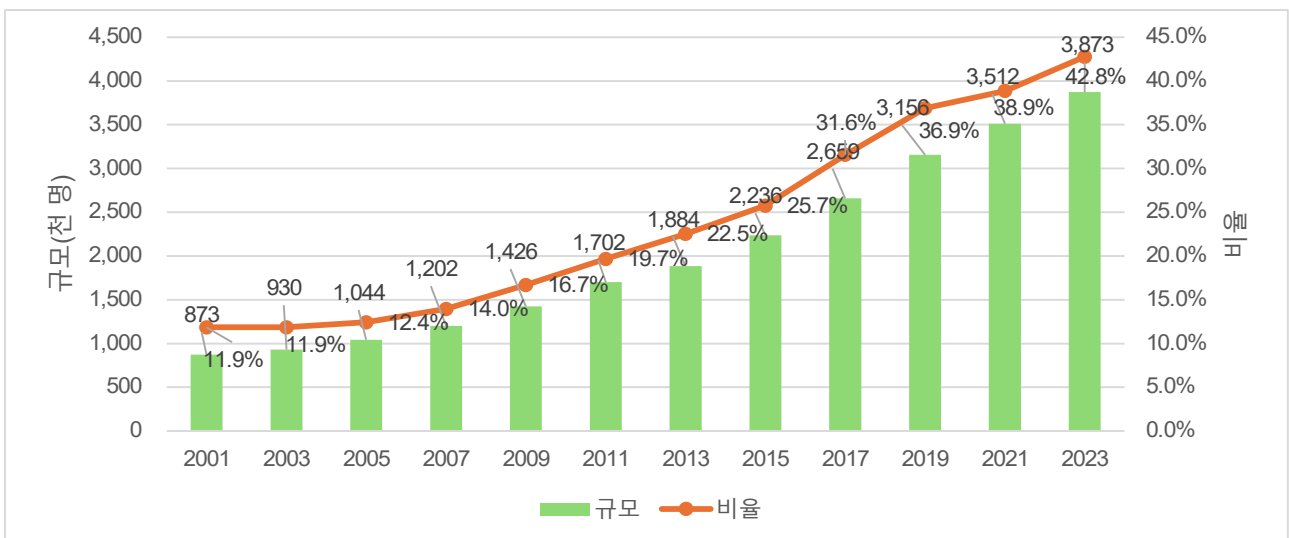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1
[그림 2-1] 주당 근로시간 및 근무일	9
[그림 2-2] 주간 시급액 분포	12
[그림 2-3] 야간 시급액 분포	13
[그림 2-4] 주휴수당 수령 실태	17
[그림 2-5] 사회보험 가입 실태	23
[그림 2-6] 3.3 노동자 여부	25
[그림 2-7] 투잡 하는 이유	29
[그림 2-8] 점포 운영형태	30
[그림 2-9] 월 휴무일 및 1일 영업시간 현황	32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32
[그림 2-11] 1년 전 대비 매출 현황	33
[그림 2-12] 지급 로열티 수수료율 분포	36
[그림 2-13] 지급 수수료액 분포	37
[그림 2-14] 로열티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	37

1장 서론

1절 조사 배경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한국 노동사회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정책방안은 주로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집중되어 왔다.
- 반면에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고용형태로서,
 -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비정규 고용형태였다.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1년 87만 3천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387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42.8%는 단시간 노동자이다.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율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대비 비율치임.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단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시간 노동에는 대체로 여성, 청소년 및 준고령 노동자 등 대체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부업’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별로 직종·업종이 분리·분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청소년이 단시간으로 취업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직종들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2010년대부터 지역의 비정규 센터들이 중심으로 지역 내 단시간 노동자, 특히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안산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노동실태 개선사업인 ‘힘내라 알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 2020년부터는 경기도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노동권익서포터즈’라는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사업을 전개해 왔다.
- 이 보고서는 2024년 경기도와 부천시·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중 설문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절 조사 목적·내용

1. 조사 목적

- 부천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
 - 임금, 근로조건 등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과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시간 노동자의 상당 수는 청소년, 여성, 준고령 등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이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자영·고용주의 지위에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하에서는 종속성을 지닌 소규모 사업주이기도 하다.
 - 점주 실태조사를 통해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가맹본사와의 거래관계 실태와 고충을 파악하고자

1) 조돈문의 (20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가인권위원회.

한다.

- 실태 조사를 통해 부천시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 및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점 파악과 아울러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

- 단시간 노동자 조사에서 파악할 주요 조사 내용은 단시간 노동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실태 파악이다.
 -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과 더불어 기타 부당 처우 경험 유무 등.
 - 임금 실태와 복리후생 적용 실태 : 시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 실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작업장 내 산업안전 : 성희롱 및 폭언·폭력 실태 등.
 - 위장 자영자 여부 :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
- 프랜차이즈 점주 조사에서 파악할 주요 조사 내용은 점포 운영 실태, 가맹점 본사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주요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태 중 편의점·커피점·햄버거점·제빵(과)점 등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태들이다.
 - 경기도는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종사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업종이 집중된 광역지자체이다.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2년)

프랜차이즈 업태	전국		경기도		비율	
	사업체 수 (A)	종사자수 (B)	사업체 수 (C)	종사자수 (D)	C/A	D/B
체인화 편의점	53,827	200,882	14,790	58,987	27.5%	29.4%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2,138	5,048	630	1,444	29.5%	28.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591	13,933	1,171	3,642	25.5%	26.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3,911	9,390	1,026	2,477	26.2%	26.4%
한식 음식점업	45,465	144,155	12,377	39,092	27.2%	27.1%
외국식 음식점업	14,273	55,616	4,147	16,071	29.1%	28.9%

프랜차이즈 업태	전국		경기도		비율	
	사업체 수 (A)	종사자수 (B)	사업체 수 (C)	종사자수 (D)	C/A	D/B
제과점업	9,020	37,316	2,417	10,327	26.8%	27.7%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7,295	61,829	4,441	16,214	25.7%	26.2%
치킨전문점	29,348	64,195	7,112	16,115	24.2%	25.1%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19,900	55,662	5,368	15,445	27.0%	27.7%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10,719	29,889	2,502	7,475	23.3%	25.0%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9,581	116,831	7,373	29,616	24.9%	25.3%
자동차 전문 수리업	5,558	27,072	1,502	7,735	27.0%	28.6%
두발 미용업	4,596	21,389	1,461	6,519	31.8%	30.5%
가정용 세탁업	4,757	6,343	1,430	1,932	30.1%	30.5%
기타 프랜차이즈	31,335	93,155	8,706	27,326	27.8%	29.3%
합계	286,314	942,705	76,453	260,417	26.7%	27.6%

* 통계청, 「프랜차이즈조사」(2022년)

-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단시간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가 집중 취업하는 대표 서비스 업종이기도 하다.

3절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단시간 노동자와 점주(가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는 부천시 관내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가 방문하여 1:1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장 설문조사 결과

1절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조사는 2024년 4월~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774명의 단시간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년도 1,663명보다 조사 참여자가 늘어났다.

[표 2-1] 조사 참여자 세부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	남성	538	30.3	가맹 형태	가맹점	1,513	85.3
	여성	1,236	69.7		직영점	34	1.9
연령	20세미만	210	11.9		근로시간 구분	잘모름	227
	25세미만	843	47.6	15시간미만		1,106	62.4
	30세미만	312	17.6	36시간미만		490	27.6
	30대	168	9.5	36시간이상	177	10.0	
	40대이상	239	13.5	근속	3개월이하	653	37.4
	평균	27.3세			6개월이하	285	16.3
업태	편의점	1,008	56.8		1년이하	297	17.0
	커피점	428	24.1	2년이하	288	16.5	
	햄버거점	128	7.2	2년초과	222	12.7	
	피자점	38	2.1	평균	12.0개월		
	제과점	133	7.5				
	기타	39	2.2				

- 성별에서는 여성이 2/3를 넘고 있다.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가 37.4%, 6개월 이하까지 합하면 53.7%로 전년도 48.1% 대비 약간 높아졌다. 그에 따라 평균 근속 기간은 12.0개월로 전년도 12.8개월보다 약간 감소했다.
- 연령대를 보면 전체의 1/2 정도인 47.6%가 20세~24세이다. 1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참여자의 59.5%가 25세 미만이다. 단시간 노동이 20대 청년노동자의 주된 고용형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7.3세로 전년도 26.5세 대비 약간 높아졌다.
- 가맹형태에서는 85.3%가 가맹점이고 직영점 노동자는 34명에 불과하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노동자 227명 중 184명(81.1%)이 편의점 노동자이다. 사실상 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을 보면 62.4%가 주 15시간 미만자다.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에서 주 15시간 미만자 비율은 2021년 48.0%, 2022년 54.9%, 2023년 58.9%, 올해는 62.4%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초단시간으로 고용하는 점주의 고용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 업태에서는 56.8%가 편의점이다. 커피점은 24.1%로 조사 참여자의 80.9%가 편의점과 커피점 노동자이다. 2024년 부천시 단시간 노동자 실태 분석은 사실상 편의점과 커피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이하 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올해 조사부터는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의 브랜드를 파악했다.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 1,008명의 브랜드를 보면 CU 가 313명(31.1%), GS25가 438명(43.5%), 세븐일레븐이 152명(15.1%), 이마트24가 105명(10.4%)이다.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1) 근속

- 조사 참여자의 근속 개월 분포를 보면 1개월이 209명(11.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2개월(193명, 10.9%)과 3개월(149명, 8.4%) 순서이다.
- 최소값은 0개월이며, 최대값은 193개월(16.1년)이다. 평균은 12.0개월이지만 중위(mean)값은 6.0개월이다.
- 세부 변수별로 근속 평균을 보면 여성에서 근속 기간이 약간 긴 편이며, 40대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가장 긴 편이다.
- 업태에서는 피자점에서 길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근속도 긴 편이다.

[표 2-2] 세부 변수별 근속 평균

구분		근속 평균(개월)	구분		근속 평균(개월)
성	남성	11.8	업태	편의점	12.2
	여성	12.1		커피점	9.3
연령	20세미만	4.6		햄버거점	14.4
	25세미만	9.4		피자점	18.8
	30세미만	13.7		제과점	12.8
	30대	16.8		기타	18.1
	40대이상	22.3	가맹점	12.1	
근로시간	15시간미만	9.0	가맹형태	직영점	15.1

구분		근속 평균(개월)	구분		근속 평균(개월)
	36시간미만	14.8		잘모름	10.6
	36시간이상	23.1	전체		12.0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확연히 긴 편이다.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91.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92.8%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89.0%, 교부 비율은 91.9%였다. 작성, 교부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약간 상승했다.
- 작성, 교부 비율이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지만, 10명 중 1명(9.8%)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잘 모름’ 을 고려하면 실제 미작성·미교부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명)	비율(%)	근로계약서 교부	인원(명)	비율(%)
작성	1,615	91.1	교부	1,493	92.8
미작성	105	5.9	미교부	62	3.9
잘모름	53	3.0	잘모름	54	3.4
전체	1,773	100.0	전체	1,609	100.0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에서 작성 비율은 높지만 교부 비율은 남성 대비 약간 낮은 편이며, 연령에서는 10대에서 미작성, 미교부 비율이 확연히 높다.
-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에서 미작성, 미교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구분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수령		
		작성	미작성	잘모름	교부	미교부	잘모름
성별	남성	90.3%	5.9%	3.7%	93.6%	2.7%	3.7%
	여성	91.4%	5.9%	2.7%	92.4%	4.4%	3.2%
연령	20세미만	89.0%	6.7%	4.3%	85.0%	9.1%	5.9%
	25세미만	91.5%	5.5%	3.1%	92.8%	3.5%	3.6%

구분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수령		
		작성	미작성	잘모름	교부	미교부	잘모름
	30세미만	92.9%	5.4%	1.6%	94.8%	2.1%	3.1%
	30대	92.9%	3.0%	4.2%	95.5%	1.9%	2.6%
	40대이상	88.2%	9.2%	2.5%	94.7%	4.3%	1.0%
업태	편의점	88.0%	7.9%	4.1%	92.1%	4.1%	3.8%
	커피점	95.6%	2.6%	1.9%	93.6%	4.0%	2.5%
	햄버거점	97.7%	1.6%	0.8%	96.8%	0.8%	2.4%
	피자점	94.7%	2.6%	2.6%	88.6%	5.7%	5.7%
	제과점	91.0%	8.3%	.8%	91.7%	4.1%	4.1%
	기타	97.4%	-	2.6%	94.7%	5.3%	-
가맹형태	가맹점	91.7%	5.8%	2.5%	93.2%	4.1%	2.7%
	직영점	97.1%	2.9%	-	93.9%	-	6.1%
	잘모름	85.9%	7.5%	6.6%	89.7%	3.1%	7.2%
근로시간	15시간미만	91.7%	5.1%	3.3%	92.9%	3.7%	3.5%
	36시간미만	89.4%	8.0%	2.7%	92.2%	4.4%	3.4%
	36시간이상	92.1%	5.6%	2.3%	93.8%	3.7%	2.5%
근속	3개월이하	89.7%	7.2%	3.1%	92.3%	6.0%	1.7%
	6개월이하	92.3%	6.3%	1.4%	91.2%	3.4%	5.4%
	1년이하	91.2%	5.1%	3.7%	95.2%	1.8%	3.0%
	2년이하	89.5%	5.6%	4.9%	93.0%	2.3%	4.7%
	2년초과	94.6%	4.1%	1.4%	92.4%	2.9%	4.8%
전체		91.1%	5.9%	3.0%	92.8%	3.9%	3.4%

-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미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편의점만을 대상으로 브랜드별로 보면 미작성 비율이 높은 브랜드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율이 높은 브랜드는 CU와 세븐일레븐에서 높다.

[표 2-5] 편의점 브랜드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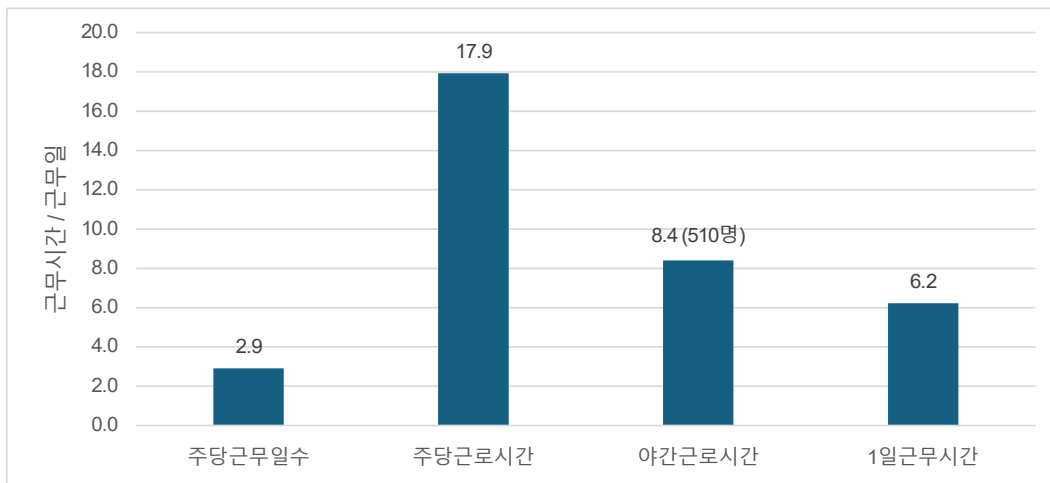
구분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수령		
	작성	미작성	잘모름	교부	미교부	잘모름
CU	88.5%	7.0%	4.5%	90.6%	6.1%	3.2%
GS25	90.9%	5.3%	3.9%	93.7%	2.3%	4.0%
세븐일레븐	82.8%	12.6%	4.6%	91.2%	4.8%	4.0%

구분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수령		
	작성	미작성	잘모름	교부	미교부	잘모름
이마트24	81.9%	15.2%	2.9%	90.7%	4.7%	4.7%
전체	88.0%	7.9%	4.1%	92.1%	4.1%	3.8%

3) 근무시간

- 조사 참여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보면 주 평균 2.9일을 근무하며 1주 근로시간 평균은 17.9시간이다. 주당 근무시간 중 야간 근무시간 평균은 8.4시간이며, 하루 근무일당 근로시간 평균은 6.2시간이다.
- 전년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보면 주 평균 2.9일을 근무하며 주 근로시간 평균은 19.1시간이다. 주당 근무시간 중 야간 근무시간 평균은 8.3시간이며, 하루 근무일당 근로시간 평균은 6.5시간이었다. 올해 조사에서 주 평균 근무일은 동일하지만 1주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며, 1일 근무일당 근로시간은 약간 감소했다.

[그림 2-1] 주당 근로시간 및 근무일



- 세부 변수별로 평균을 보면 남성은 야간 근로시간, 근무일당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 연령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당 근무일 및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업태에서는 햄버거점과 피자점에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표 2-6]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로시간

구분		주당근무일수	주당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성	남성	2.9	20.2	11.6	6.9
	여성	2.9	17.0	5.6	5.9
연령	20세미만	2.6	13.9	5.1	5.6
	25세미만	2.6	15.6	5.8	6.1
	30세미만	3.1	20.2	11.1	6.5
	30대	3.6	24.0	15.0	6.5
	40대이상	3.5	22.8	15.1	6.6
업태	편의점	2.6	17.5	10.2	6.7
	커피점	3.3	18.1	3.8	5.5
	햄버거점	3.7	22.7	4.7	6.1
	피자점	3.6	24.8	4.5	6.7
	제과점	3.0	15.3	4.0	5.2
	기타	2.7	14.0	2.3	5.2
가맹형태	가맹점	3.0	18.0	8.6	6.2
	직영점	3.6	25.0	9.3	7.2
	잘모름	2.5	16.1	7.4	6.6
근로시간	15시간미만	2.2	11.5	4.3	5.8
	36시간미만	3.8	23.1	8.4	6.4
	36시간이상	5.0	43.8	24.8	8.7
근속	3개월이하	2.8	16.1	7.6	5.9
	6개월이하	2.8	16.4	8.1	6.2
	1년이하	2.9	17.9	7.0	6.3
	2년이하	2.9	18.5	8.6	6.4
	2년초과	3.5	24.3	13.3	6.8
전체		2.9	17.9	8.4	6.2

- 근속에서는 근속이 길수록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긴 편이다.

4) 휴게 실태

-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유무와 휴게시간 사용 실태, 휴게시간 근무 시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있다고 밝힌 단시간 노동자는 50.1로 전년도 49.7%보다 약간 올랐다.
- 휴게시간에 쉬기 어렵다고 밝힌 노동자는 22.5%,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에 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23.6%가 지급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조사에서 해당 비율은 각각 25.2%, 26.5%로 이번 조사에서 약간 하락했다.

[표 2-7] 휴게시간 실태 (전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유무			실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있음	888	50.1	실 수 있음	936	52.8	지급	592	33.4
없음	713	40.2	쉬기 어려움	399	22.5	미지급	418	23.6
무응답	173	9.8	무응답	439	24.7	무응답	764	43.1

- 근무일당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는 1,65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가 39.1%, 휴게시간에 쉬기 어렵다고 밝힌 노동자의 비율은 23.3%였다.
- 전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41.7%, 24.9%로 이번 조사에서 약간 하락했다. 전년 대비 단시간 노동자 휴게실태는 조금 개선된 셈이다.
- 휴게시간에 근무 시 임금 미지급 비율은 23.8%로 전년도 26.5% 대비 약간 하락했다.

[표 2-8] 휴게시간 실태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유무			실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있음	849	51.5	실 수 있음	891	54.0	지급	566	34.3
없음	645	39.1	쉬기 어려움	384	23.3	미지급	392	23.8
무응답	156	9.5	무응답	375	22.7	무응답	692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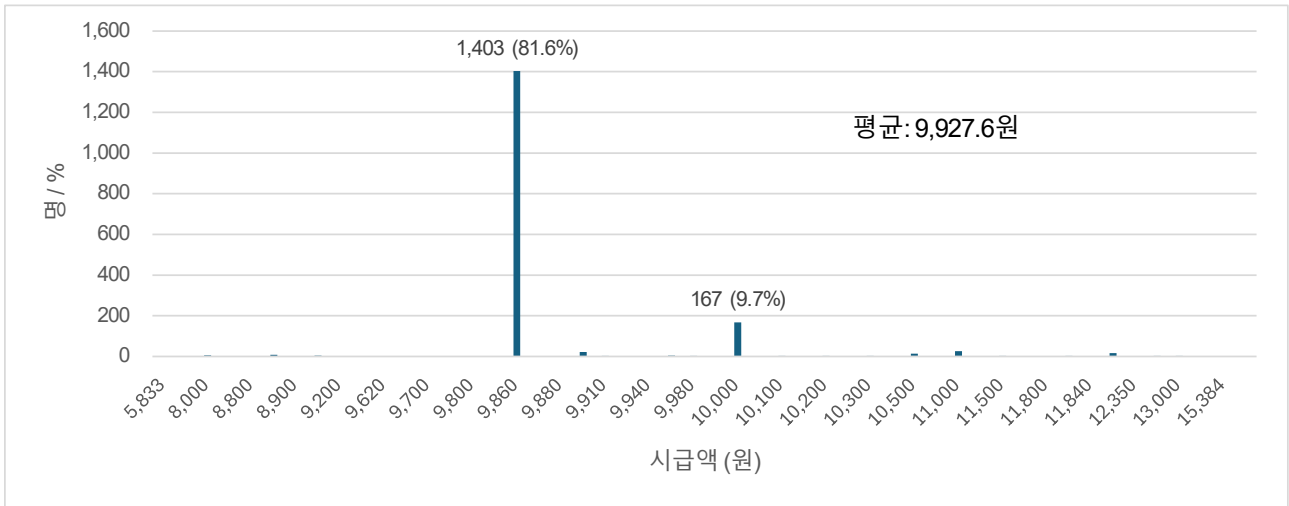
- 실 휴게시간 사용과 임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응답치가 많아서 실제 비율은 분석 수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1) 시급액

- 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는 1,720명이다. 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 중 81.6%인 1,403명이 2024년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을 받고 있다. 시급액 평균은 9,927.6원이며, 중위값은 9,860원이다.
-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하 금액은 5,833원이며 최고 금액은 16,000원이다.
-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30명으로 1,720명 대비 1.7%이다. 전년도 주간 시급액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7%로 이번 조사에서 1.0%p 낮아졌다.

[그림 2-2] 주간 시급액 분포



- 주간 시급액 평균을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30대, 가맹형태 직영점에서 시급액이 높다. 근속에서는 2년 초과에서 가장 높다.
- 업태에서는 편의점의 시급액 평균이 가장 낮다.

[표 2-9]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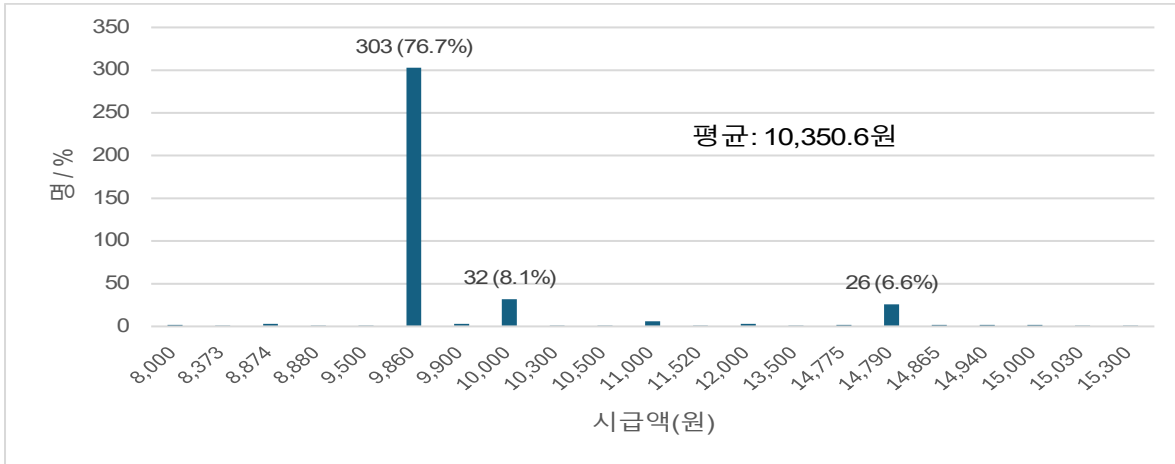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성	남성	9,912.3	가맹형태	가맹점	9,943.1
	여성	9,933.9		직영점	9,833.5
연령	20세미만	9,889.7		근로시간	잘모름
	25세미만	9,925.5	15시간미만		9,890.9
	30세미만	9,947.3	36시간미만	9,946.0	
	30대	9,950.6	36시간이상	10,120.4	
	40대이상	9,928.2	근속	3개월이하	9,885.0
업태	편의점	9,867.5		6개월이하	9,910.0
	커피점	10,015.2		1년이하	9,959.8
	햄버거점	9,984.1		2년이하	9,955.2
	피자점	10,247.4		2년초과	10,005.9
	제과점	9,911.5		전체	9,927.6
	기타	9,999.5			

- 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는 395명이다. 야간 시급액 평균은 10,350.6원이며 76.7%인 303명이 최저

임금 시급액을 받고 있다.

- 야간 시급액의 최저 시급액은 8,000원이며 최고 시급액은 15,300원, 중위 값은 9,860원이다.

[그림 2-3] 야간 시급액 분포



- 야간 시급액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8명으로 야간시급액을 밝힌 노동자 대비 2.0%이다. 전년도 3.5%에서 1.5%p 낮아졌다.
-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평균을 보면 여성, 20대에서 평균이 높다. 근속이 길수록 시급액 수준도 높으며 근로시간에서는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다.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가장 높다.

[표 2-10]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성	남성	10,164.6	가맹형태	가맹점	10,376.0
	여성	10,539.5		직영점	12,857.0
연령	20세미만	10,585.0		근로시간	잘모름
	25세미만	10,500.3	15시간미만		10,081.1
	30세미만	10,051.7	36시간미만		10,880.7
	30대	10,227.3	36시간이상	10,324.3	
	40대이상	9,937.9	근속	3개월이하	10,159.8
업태	편의점	9,896.4		6개월이하	10,168.1
	커피점	10,322.9		1년이하	10,389.4
	햄버거점	13,245.2		2년이하	10,769.1
	피자점	15,045.0		2년초과	10,575.9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제과점	11,526.7	전체	10,350.6
	기타	10,068.6		

- 주·야간 시급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34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노동자 1,774명 대비 1.9% 수준이다. 전년도 2.7% 대비 0.8%p 낮아졌다.
-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치는 2020년에는 15.7%로 높았지만 2021년에는 4.9%,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2년 4.1%, 2023년 2.7%, 2024년 1.9%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성별 구성비에서는 여성이 19명, 55.9%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참여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5%로 남성보다 낮다.
- 조사 참여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은 변수를 보면 연령에서는 10대, 근로시간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 가맹형태 직영점에서 높다. 업태에서는 편의점에서 높으며, 근속에서는 3년 이하에서 높은 편이다.

[표 2-11] 세부 변수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인원(명)	구성비	조사참여자 대비	구분		인원(명)	구성비	조사참여자 대비
성	남성	15	44.1%	2.8%	가맹 형태	가맹점	27	79.4%	1.8%
	여성	19	55.9%	1.5%		직영점	1	2.9%	2.9%
연령	20세미만	6	17.6%	2.9%		근로 시간	잘모름	6	17.6%
	25세미만	17	50.0%	2.0%	15시간미만		15	44.1%	1.4%
	30세미만	5	14.7%	1.6%	36시간미만		16	47.1%	3.3%
	30대	3	8.8%	1.8%	36시간이상	3	8.8%	1.7%	
업태	40대이상	3	8.8%	1.3%	근속	3개월이하	20	58.8%	3.1%
	편의점	28	82.4%	2.8%		6개월이하	1	2.9%	0.4%
	커피점	3	8.8%	0.7%		1년이하	5	14.7%	1.7%
	제과점	3	8.8%	2.3%		2년이하	4	11.8%	1.4%
						2년초과	4	11.8%	1.8%
					전체	34	100.0%	1.9%	

- 편의점 업태의 최저임금 미만자는 28명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CU가 3명, GS25가 9명, 세븐일레븐이 16명이다. 브랜드별 조사 참여 노동자 대비로 보면 각각 1.0%, 2.1%, 10.5%이다.
- 2021년 11월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을 보면 3.1%, 55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받음 비율까지 합산하면 30.2%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법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매월 + 가끔)받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91.2%, 788명)은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

[표 2-12]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교부 여부			교부 방식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매월받음	859	48.7	서면	123	14.2
가끔받음	478	27.1	문자(모바일)메세지	665	77.0
못받음	55	3.1	이메일	55	6.4
잘모름	288	16.3	기타	21	2.4
1개월미만	85	4.8	전체	864	100.0
전체	1,765	100.0			

- 세부 변수별로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를 보면 남성, 10대, 업태에서는 편의점, 제과점에서 매월 받음 비율이 낮다.

[표 2-13] 세부 변수별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구분	매월받음	가끔받음	못받음	잘모름	1개월미만	
성별	남성	47.9%	26.4%	1.9%	17.9%	6.0%
	여성	49.0%	27.4%	3.7%	15.6%	4.3%
연령	20세미만	37.8%	26.8%	1.0%	25.8%	8.6%
	25세미만	45.4%	28.6%	3.7%	17.8%	4.5%
	30세미만	51.0%	24.7%	3.2%	16.7%	4.5%
	30대	60.8%	19.9%	3.6%	12.0%	3.6%
	40대이상	58.2%	30.1%	2.5%	5.4%	3.8%
업태	편의점	42.2%	32.4%	2.8%	17.5%	5.1%
	커피점	57.2%	21.2%	3.8%	12.9%	4.9%
	햄버거점	73.8%	7.1%	5.6%	11.1%	2.4%
	피자점	63.2%	13.2%	5.3%	18.4%	-
	제과점	37.9%	33.3%	1.5%	21.2%	6.1%
	기타	64.1%	10.3%	-	20.5%	5.1%
가맹형태	가맹점	50.3%	26.4%	3.2%	15.1%	5.0%
	직영점	72.7%	12.1%	6.1%	6.1%	3.0%
	잘모름	34.1%	34.1%	2.2%	25.7%	4.0%
근로시간	15시간미만	43.3%	29.5%	3.0%	18.7%	5.5%
	36시간미만	56.1%	23.0%	2.5%	13.7%	4.7%
	36시간이상	61.9%	23.3%	5.7%	8.5%	0.6%
근속	3개월이하	40.1%	25.2%	2.0%	19.8%	12.8%

구분	매월받음	가끔받음	못받음	잘모름	1개월미만
6개월이하	55.1%	27.0%	2.8%	15.1%	-
1년이하	54.2%	29.3%	2.4%	14.1%	-
2년이하	48.4%	29.3%	5.9%	16.0%	0.3%
2년초과	56.6%	27.1%	4.5%	11.8%	-
전체	48.7%	27.1%	3.1%	16.3%	4.8%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근속 3개월 이하에서 매월 받음 비율이 낮다.

○ 편의점 브랜드별로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를 보면 GS25와 세븐일레븐에서 못받음 비율이 높은 편이다.

- 모든 브랜드에서 잘모름 비율이 10%를 넘고 있어 실제 비율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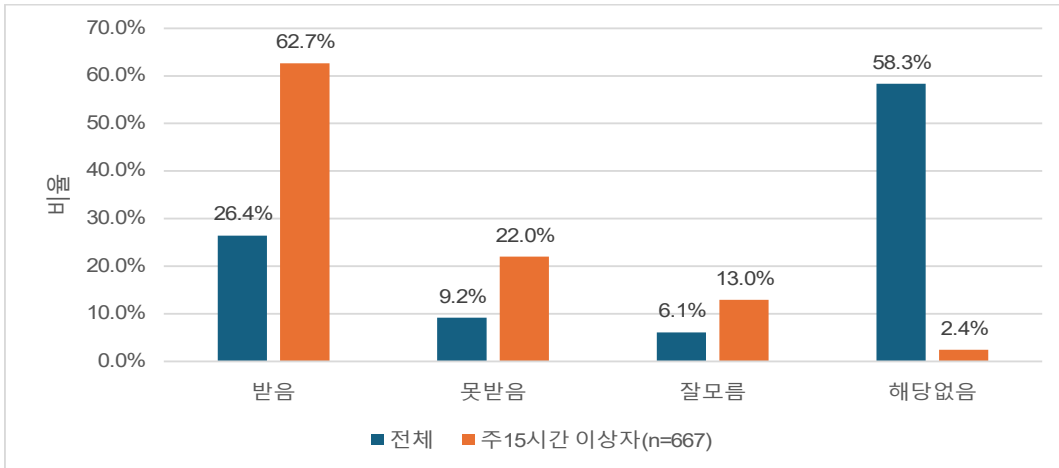
[표 2-14] 편의점 브랜드별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구분	매월받음	가끔받음	못받음	잘모름	1개월미만
CU	40.7%	31.7%	1.9%	18.3%	7.4%
GS25	45.8%	30.2%	3.2%	17.4%	3.4%
세븐일레븐	35.8%	37.7%	3.3%	19.2%	4.0%
이마트24	41.0%	36.2%	2.9%	13.3%	6.7%
전체	42.2%	32.4%	2.8%	17.5%	5.1%

(2) 주휴수당

○ 전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 수령 여부를 보면 ‘받음’ 으로 응답한 인원이 467명 (26.4%)이었으며, ‘못받음’ 이 162명, 9.1%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자로서 ‘해당 없음’ 으로 응답한 인원은 1,030명, 53.8%로 나타났으며, ‘잘모름’ 은 107명(6.1%)이다.

[그림 2-4] 주휴수당 수령 실태



- 주 15시간 이상인 667명을 대상으로 하면 받음 비율은 62.7%(전년도 61.1%)로 높아진다. 하지만 못 받음 비율도 22.0%(전년도 26.7%)에 이르며, 해당없음까지 포함하면 24.4%(전년도 27.6%)이다. 주 15시간 이상자 4명 중 1명 꼴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전년도 조사 대비 주휴수당 지급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 40대 이상, 근속 2년 초과에서 주휴수당 미수령(해당 없음 포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특히 40대 이상에서 주휴수당 미수령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5]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성별	남성	56.7%	23.8%	16.3%	3.3%
	여성	66.0%	21.0%	11.1%	1.9%
연령	20세미만	70.2%	10.6%	17.0%	2.1%
	25세미만	66.5%	19.5%	11.4%	2.5%
	30세미만	66.7%	21.3%	11.3%	0.7%
	30대	63.5%	14.6%	21.9%	-
	40대이상	49.7%	35.0%	9.8%	5.6%
업태	편의점	38.8%	39.1%	18.6%	3.5%
	커피점	85.9%	5.1%	8.3%	0.6%
	햄버거점	92.1%	1.1%	3.4%	3.4%
	피자점	88.5%	-	11.5%	-
	제과점	89.5%	5.3%	5.3%	-
	기타	90.0%	-	10.0%	-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가맹형태	가맹점	64.8%	20.9%	11.5%	2.8%
	직영점	88.5%	3.8%	7.7%	-
	잘모름	32.8%	39.1%	28.1%	-
근로시간	36시간미만	62.1%	22.1%	12.5%	3.3%
	36시간이상	64.2%	21.6%	14.2%	-
근속	3개월이하	59.7%	20.4%	17.3%	2.6%
	6개월이하	64.9%	20.2%	11.7%	3.2%
	1년이하	63.0%	23.1%	13.0%	0.9%
	2년이하	69.2%	20.0%	8.3%	2.5%
	2년초과	60.3%	26.5%	11.0%	2.2%
전체		62.7%	22.0%	13.0%	2.4%

- 편의점에서는 못받음 비율(해당 없음 포함)이 42%를 넘고 있어, 법 위반 실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 편의점 브랜드별로 보면 이마트24와 GS25에서 못받음 비율이 높다.

[표 2-16] 편의점 브랜드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CU	40.8%	35.0%	20.4%	3.9%
GS25	40.3%	43.1%	14.6%	2.1%
세븐일레븐	34.4%	35.9%	25.0%	4.7%
이마트24	35.3%	41.2%	17.6%	5.9%
전체	38.8%	39.1%	18.6%	3.5%

- 한편 올해 조사 참여자 중 주 15시간 이상자 비율은 37.6%로 전년도 41.0%에서 약간 하락했다.
- 주 15시간 이상자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37.6%, 2023년 41.0%, 2022년에는 45.0%였다.
-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미만 형태로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 퇴직금

- 전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 하는 곳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를 보면 명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힌 비율은 14.3%, 251명이다.
-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는 27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는 비율을 보면 46.2%, 126명이다. 전년도 48.8%에서 약간 낮아졌다.

- 해당없음을 포함해 46명(16.8%)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잘 모름’ 까지 고려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7] 퇴직금 수령 여부

구분	전체		근속 1년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받음	251	14.3	126	46.2
못받음	95	5.4	32	11.7
잘모름	392	22.4	101	37.0
해당없음	1,013	57.9	14	5.1
소계	1,751	100.0	273	100.0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근속 2년 초과, 10대와 40대 이상, 편의점과 햄버거점에서 퇴직금 미수령(해당 없음 포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18] 세부 변수별 퇴직금 실태(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성별	남성	43.3%	12.2%	41.1%	3.3%
	여성	47.5%	11.5%	35.0%	6.0%
연령	20세미만	50.0%	-	25.0%	25.0%
	25세미만	40.7%	11.6%	39.5%	8.1%
	30세미만	45.3%	7.5%	47.2%	-
	30대	59.6%	10.6%	27.7%	2.1%
	40대이상	44.3%	16.5%	34.2%	5.1%
업태	편의점	26.5%	19.9%	47.8%	5.9%
	커피점	62.7%	5.1%	30.5%	1.7%
	햄버거점	67.5%	5.0%	15.0%	12.5%
	피자점	93.8%	-	6.3%	-
	제과점	38.9%	-	61.1%	-
	기타	100.0%	-	-	-
가맹형태	가맹점	48.5%	12.4%	33.9%	5.2%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직영점	69.2%	15.4%	7.7%	7.7%
	잘모름	14.8%	3.7%	77.8%	3.7%
근로시간	36시간미만	40.0%	11.4%	41.1%	7.6%
	36시간이상	59.1%	12.5%	28.4%	-
근속	1년이하	52.4%	4.8%	38.1%	4.8%
	2년이하	40.0%	10.0%	45.0%	5.0%
	2년초과	50.8%	14.4%	29.5%	5.3%
전체		46.2%	11.7%	37.0%	5.1%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높으며, 근로시간에서는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 높다.

6) 인격적 대우

○ 폭언·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유경험자는 163명으로 월 평균 경험 횟수는 2.4회이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 시 사업주 폭언·폭력 유경험자 비율은 2.8%p 하락했으며 횟수도 3.4회에서 감소했다.

- 사업주 및 동료에 의한 폭언, 폭력 유경험자는 없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사업주 폭언, 폭력만 유경험자 비율이 0.4%였다.

[표 2-19] 폭언·폭력 실태

구분	사업주 폭언·폭력		동료 폭언·폭력		손님 폭언·폭력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있음	-	-	-	-	163 (한 달 평균: 2.42회)	9.2
없음	1,773	100.0	1,773	100.0	1,608	90.8

○ 성희롱 실태를 보면 사업주나 동료의 성희롱 유경험자는 없으며, 손님 성희롱 유경험자는 23명, 1.3%로 나타났다. 전년도 2.2%에서 약간 감소했다.

[표 2-20] 성희롱 실태

구분	사업주 성희롱		동료 성희롱		손님 성희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있음	-	-	-	-	23	1.3

구분	사업주 성희롱		동료 성희롱		손님 성희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없음	1,774	100.0	1,773	100.0	1,745	98.7

- 손님 성희롱 유경험자중 성별에서는 여성이 19명, 연령에서는 20대가 12명,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19명을 차지하고 있다.

7) 임금 지급

○ 임금 체불이나 파손·분실 등의 이유로 임금 삭감을 경험한 노동자는 각각 19명이다.

- 임금 체불 유경험자 19명중 15명이 여성이며,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10명, 커피점이 5명이다.

- 마감 후 차액 발생 유경험자는 629명, 35.8%이다.

- 차액발생시 단시간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본인부담 + 반반 부담)은 17.2%로 전년도 20.8%에서 낮아졌다.

[표 2-21] 임금 지급 실태

구분	임금 체불		임금 삭감		마감 후 차액 처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본인부담	사업주부담	반반부담	경험한적없음
인원 (명)	19	1,751	19	1,746	274	326	29	1,129
비율 (%)	0.8	99.2	1.1	98.9	15.6	18.5	1.6	64.2

- 마감후 차액처리 실태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 30대 이상, 근로시간과 근속이 길수록 차액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반반부담 포함)이 높은 편이다.

[표 2-22] 세부 변수별 마감 후 차액 처리

구분		본인부담	사업주부담	반반부담	경험한적없음
성별	남성	19.1%	15.9%	1.5%	63.5%
	여성	14.1%	19.7%	1.7%	64.5%
연령	20세미만	11.9%	8.6%	1.4%	78.1%
	25세미만	13.3%	20.1%	1.2%	65.3%
	30세미만	19.4%	18.8%	0.6%	61.2%
	30대	16.2%	21.6%	4.8%	57.5%
	40대이상	21.2%	19.5%	2.6%	56.7%
업태	편의점	25.6%	16.9%	2.3%	55.2%
	커피점	2.8%	18.3%	0.7%	78.2%

구분		본인부담	사업주부담	반반부담	경험한적없음
	햄버거점	2.4%	19.0%	2.4%	76.2%
	피자점	-	30.6%	-	69.4%
	제과점	2.3%	21.2%	-	76.5%
	기타	-	41.0%	-	59.0%
가맹형태	가맹점	14.2%	19.0%	1.6%	65.2%
	직영점	5.9%	23.5%	5.9%	64.7%
	잘모름	26.2%	14.7%	1.3%	57.8%
근로시간	15시간미만	14.5%	14.7%	1.2%	69.6%
	36시간미만	17.7%	24.8%	1.2%	56.3%
	36시간이상	16.1%	25.3%	5.7%	52.9%
근속	3개월이하	13.2%	10.3%	0.8%	75.7%
	6개월이하	15.2%	19.1%	2.5%	63.3%
	1년이하	12.6%	21.1%	1.4%	65.0%
	2년이하	16.6%	22.6%	2.1%	58.7%
	2년초과	25.1%	32.4%	2.7%	39.7%
전체		15.6%	18.5%	1.6%	64.2%

- 업태에서는 편의점에서 본인 부담 비율이 확연히 높은 편이다.

8) 기타 및 사회보험

○ 근무시간 전후로 청소 등 추가노동 여부 실태를 보면, 추가노동 유경험자는 409명으로 23.2%를 나타냈다. 전년도 21.8%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 세부 변수별로 추가노동 실태를 보면 여성, 연령 20대, 근속 6개월 초과, 편의점과 제과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상대적으로 추가노동 유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23] 세부 변수별 추가노동 경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성별	남성	20.5%	79.5%	가맹형태	가맹점	22.7%	77.3%	
	여성	24.3%	75.7%		직영점	47.1%	52.9%	
연령	20세미만	26.8%	73.2%		잘모름	23.0%	77.0%	
	25세미만	23.5%	76.5%	근로시간	15시간미만	20.3%	79.7%	
	30세미만	21.5%	78.5%		36시간미만	28.7%	71.3%	
	30대	25.1%	74.9%		36시간이상	26.3%	73.7%	
	업태	40대이상	19.5%	80.5%	근속	3개월이하	18.6%	81.4%
		편의점	19.6%	80.4%		6개월이하	22.3%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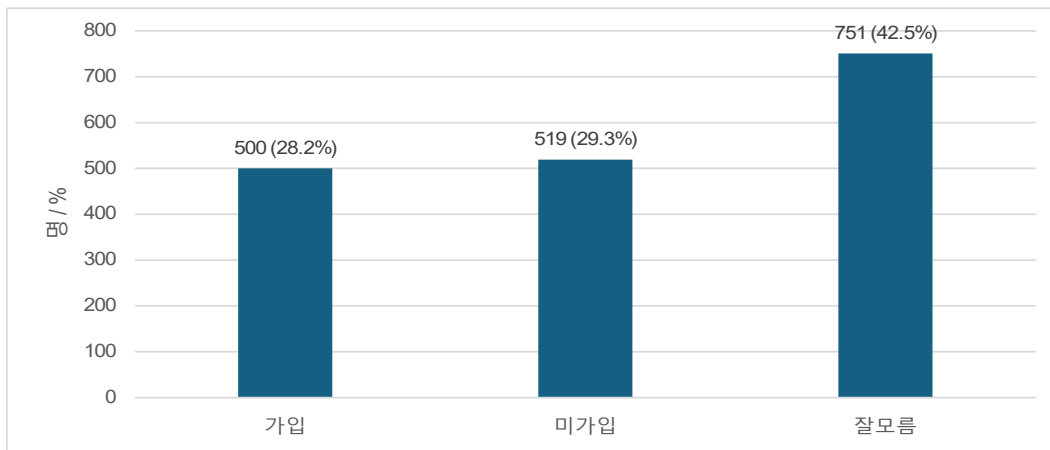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커피점	28.7%	71.3%	1년이하	25.8%	74.2%
햄버거점	32.8%	67.2%	2년이하	27.2%	72.8%
피자점	37.8%	62.2%	2년초과	30.8%	69.2%
제과점	17.4%	82.6%	전체	23.2%	76.8%
기타	28.2%	71.8%			

○ 추가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보면 추가노동 유경험자 409명 중 384명(93.9%)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혔다.

○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보면 500명, 28.2%는 가입한 것으로 밝혔다. 미가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단시간 노동자는 519명, 29.3%이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751명, 42.4%이다.

- 전년도 조사에서 가입 비율은 32.2%로 올해 조사에서는 약간 하락하였다. 반면에 미가입 비율은 전년도 25.6%에서 약간 높아졌다. ‘잘 모름’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미가입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2년 39.5%에서 2023년 32.2%, 올해는 28.2%를 나타냈다.

[그림 2-5] 사회보험 가입 실태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에서는 3개월 초과~1년 이하에서 미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표 2-24]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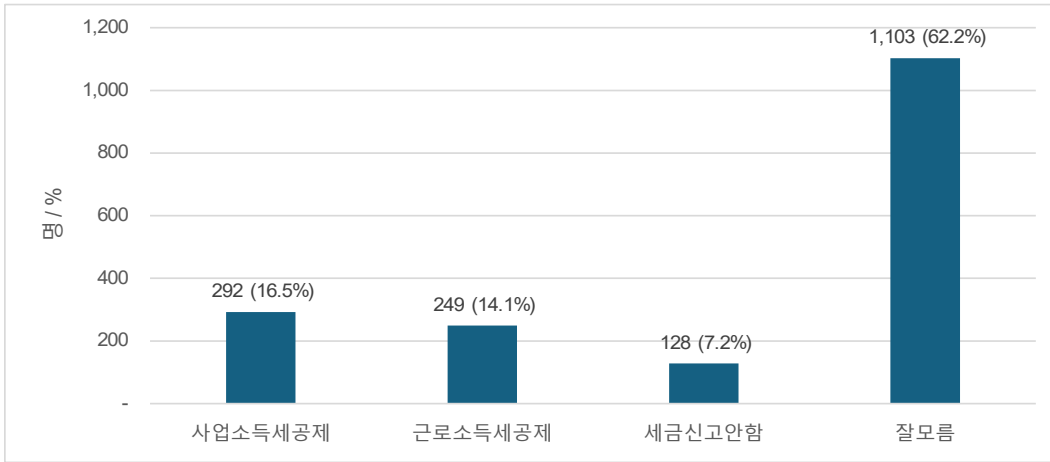
구분		가입	미가입	잘모름	구분		가입	미가입	잘모름
성별	남성	32.6%	22.6%	44.8%	가맹 형태	가맹점	28.2%	29.8%	42.1%
	여성	26.3%	32.3%	41.4%		직영점	73.5%	5.9%	20.6%
연령	20세미만	19.0%	21.4%	59.5%		근로 시간	잘모름	22.0%	30.0%
	25세미만	23.6%	27.4%	49.0%	15시간미만		18.1%	31.9%	50.0%
	30세미만	37.7%	24.5%	37.7%	36시간미만		38.0%	28.1%	33.9%
	30대	37.1%	37.7%	25.1%	36시간이상	65.0%	16.4%	18.6%	
	40대이상	34.5%	43.3%	22.3%	근속	3개월이하	20.5%	28.0%	51.5%
	업태	편의점	24.0%	31.4%		44.6%	6개월이하	26.3%	33.7%
커피점		28.2%	29.6%	42.3%		1년이하	31.8%	31.4%	36.8%
햄버거점		57.8%	16.4%	25.8%		2년이하	33.3%	27.4%	39.3%
피자점		57.9%	21.1%	21.1%		2년초과	41.9%	27.5%	30.6%
제과점		22.6%	27.1%	50.4%		전체	28.2%	29.3%	42.5%
기타		33.3%	30.8%	35.9%					

- 모든 변수에서 ‘잘 모름’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제 미가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3.3 노동자’ 여부)

-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연장 및 야근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사업주 의무를 피하려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등록하는 불법·탈법적인 고용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 문제이다.
- 단시간 노동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관행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단시간 노동자 중 292명, 16.5%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밝혔다. 전년도 16.3%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림 2-6] 3.3 노동자 여부



- 세금신고 자체를 안한다는 비율도 7.2%로 23.7%의 노동자는 불법·탈법적인 탈세에 연루되어 있는 셈이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20세 미만과 30대, 커피점과 햄버거점에서 3.3 노동자 비율이 높다.

[표 2-25] 세부 변수별 3.3 노동자 여부

구분		사업소득세공제	근로소득세공제	세금신고안함	잘모름
성별	남성	13.4%	12.8%	5.4%	68.4%
	여성	17.8%	14.6%	8.0%	59.6%
연령	20세미만	22.5%	5.3%	8.1%	64.1%
	25세미만	16.4%	11.2%	7.2%	65.2%
	30세미만	14.1%	19.9%	8.7%	57.4%
	30대	19.0%	19.6%	6.0%	55.4%
	40대이상	13.0%	20.1%	5.4%	61.5%
업태	편의점	11.5%	10.5%	8.8%	69.1%
	커피점	25.7%	17.3%	5.4%	51.6%
	햄버거점	25.0%	30.5%	2.3%	42.2%
	피자점	27.0%	21.6%	2.7%	48.6%
	제과점	11.3%	12.8%	7.5%	68.4%
	기타	23.7%	13.2%	5.3%	57.9%
가맹형태	가맹점	17.4%	14.6%	7.3%	60.6%
	직영점	5.9%	38.2%	-	55.9%
	잘모름	11.9%	6.6%	7.5%	74.0%
근로시간	15시간미만	15.1%	8.0%	7.7%	69.2%
	36시간미만	20.6%	19.8%	7.3%	52.2%
	36시간이상	13.6%	36.2%	4.0%	46.3%

구분		사업소득세공제	근로소득세공제	세금신고안함	잘모름
근속	3개월이하	17.2%	9.5%	7.1%	66.3%
	6개월이하	19.6%	12.6%	7.0%	60.7%
	1년이하	14.8%	16.5%	6.4%	62.3%
	2년이하	18.1%	15.6%	7.3%	59.0%
	2년초과	11.3%	22.6%	9.5%	56.6%
전체		16.5%	14.1%	7.2%	62.2%

- 근로시간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 근속 6개월 이하에서 3.3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 ‘잘 모름’ 비율이 높기에 향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1차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명칭·내용과 더불어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불법·탈법적인 고용관행을 계도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 편의점 브랜드별로 3.3 노동자 실태를 보면 CU와 GS25에서 사업소득세 공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세금신고 안함 비율까지 합산하면 이마트24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잘 모름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실제 3.3 노동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6] 편의점 브랜드별 3.3 노동자 여부

구분	사업소득세공제	근로소득세공제	세금신고안함	잘모름
CU	14.4%	13.5%	7.7%	64.4%
GS25	11.8%	22.9%	10.4%	54.9%
세븐일레븐	10.9%	7.8%	10.9%	70.3%
이마트24	8.8%	17.6%	14.7%	58.8%
전체	11.5%	10.5%	8.8%	69.1%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 현재 하고 있는 단시간 일에 대한 근무 만족도를 보면 임금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 는 비율이 72.2%이다. 임금외 노동조건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 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79.3%를 나타냈다.

- 5점 척도 점수에서도 임금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왔다.

[표 2-27] 임금 및 노동조건 만족도

구분	임금		임금외 노동조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매우불만족	18	1.0	8	0.5
불만족	42	2.4	18	1.0
보통	432	24.4	341	19.3
만족	662	37.3	657	37.1
매우만족	619	34.9	747	42.2
전체	1,773	100.0	1,771	100.0
5점 척도 점수	4.03		4.20	

- 세부 변수별로 만족도를 5점 척도 점수 평균으로 보면 대부분의 변수에서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4.0을 넘어서고 있다.
- 하지만 40대 이상, 업태에서는 편의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속 1년 초과~2년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낮은 편이다.

[표 2-28] 세부 변수별 임금 및 노동조건 만족도(5점 척도)

구분		임금	임금외 노동조건	구분		임금	임금외 노동조건
성	남성	4.07	4.24	가맹형태	가맹점	4.04	4.21
	여성	4.01	4.18		직영점	4.00	4.06
연령	20세미만	4.03	4.24	근로시간	잘모름	3.96	4.11
	25세미만	4.07	4.27		15시간미만	4.07	4.26
	30세미만	4.07	4.19		36시간미만	3.96	4.11
	30대	4.05	4.19		36시간이상	3.92	4.02
	40대이상	3.80	3.91		3개월이하	4.02	4.18
업태	편의점	3.96	4.14	근속	6개월이하	4.04	4.16
	커피점	4.11	4.25		1년이하	4.07	4.29
	햄버거점	4.06	4.24		2년이하	3.95	4.14
	피자점	4.32	4.39		2년초과	4.09	4.25
	제과점	4.09	4.26		전체	4.03	4.20
	기타	4.26	4.41				

- 현재 하고 있는 단시간 일 이외에 추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425명(24.1%)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추가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 4명 중 1명은 투잡을 뛰고 있는 셈이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25세 이상~30세 미만에서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근속에서는 6개월 이하에서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커피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29] 세부 변수별 투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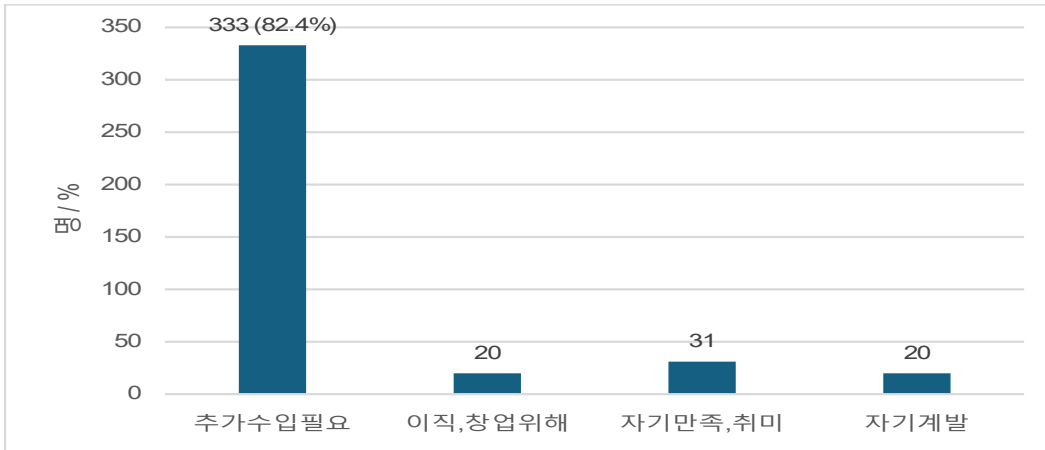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개수	
성별	남성	20.0%	2.05	80.0%
	여성	25.8%	2.09	74.2%
연령	20세미만	21.9%	2.04	78.1%
	25세미만	24.1%	2.08	75.9%
	30세미만	26.5%	2.07	73.5%
	30대	23.4%	2.13	76.6%
	40대이상	22.7%	2.08	77.3%
업태	편의점	25.6%	2.07	74.4%
	커피점	25.8%	2.11	74.2%
	햄버거점	12.6%	2.00	87.4%
	피자점	7.9%	2.00	92.1%
	제과점	23.3%	2.13	76.7%
	기타	20.5%	2.00	79.5%
가맹형태	가맹점	24.3%	2.08	75.7%
	직영점	14.7%	2.20	85.3%
	잘모름	23.8%	2.06	76.2%
근로시간	15시간미만	30.0%	2.08	70.0%
	36시간미만	16.4%	2.08	83.6%
	36시간이상	7.9%	2.00	92.1%
근속	3개월이하	25.7%	2.07	74.3%
	6개월이하	28.6%	2.10	71.4%
	1년이하	22.2%	2.06	77.8%
	2년이하	23.3%	2.08	76.7%
	2년초과	16.7%	2.05	83.3%
전체		24.1%	2.08	75.9%

-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해 부업 개수는 2개 내외이다.

○ 투잡을 하는 이유를 보면 82.4%, 333명이 추가 수입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 투잡을 뛰는 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는 셈이다.

[그림 2-7] 투잡 하는 이유



2절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부천시역 프랜차이즈 점주(점주 가족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단시간 노동자 설문과 동일하게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점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에는 부천 지역 프랜차이즈 점주 147명(개소)이 참여하였다.

- 전년도 498명(개소)에서 올해에는 큰 폭으로 조사 참여 점포가 감소했다.

-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63.3%이며, 커피점이 24.5%이다.

- 가맹형태에서는 가맹점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 점포 소유형태에서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율이 75.9%이다.

- 점포 이력에서는 3년 초과가 47.7%에 이르고 있다. 조사 참여 점포의 평균 이력은 4.3년으로 전년도 5.0년 대비 약간 짧아졌다.

[표 2-30] 조사 참여 점포 현황

구분		명/개소	비율(%)	구분		명/개소	비율(%)
성	남성	62	42.2	업태	편의점	93	63.3
	여성	85	57.8		커피점	36	24.5
연령	30대이하	36	24.7		햄버거점	4	2.7
	40대	29	19.9		피자점	7	4.8

구분		명/개소	비율(%)	구분		명/개소	비율(%)
	50대	50	34.2		제과점	5	3.4
	60대이상	31	21.2		기타	2	1.4
	평균	49.1세			가맹점	126	88.1
소유형태	자가	14	9.7	가맹형태	직영점	15	10.5
	월세	35	24.1		미가맹	2	1.4
	전세	1	0.7		이력	1년이하	29
	보증부월세	75	51.7	3년이하		41	30.6
	본사소유	19	13.1	5년이하		27	20.1
	기타	1	0.7	5년초과		37	27.6
					평균	4.3년	
				전체	1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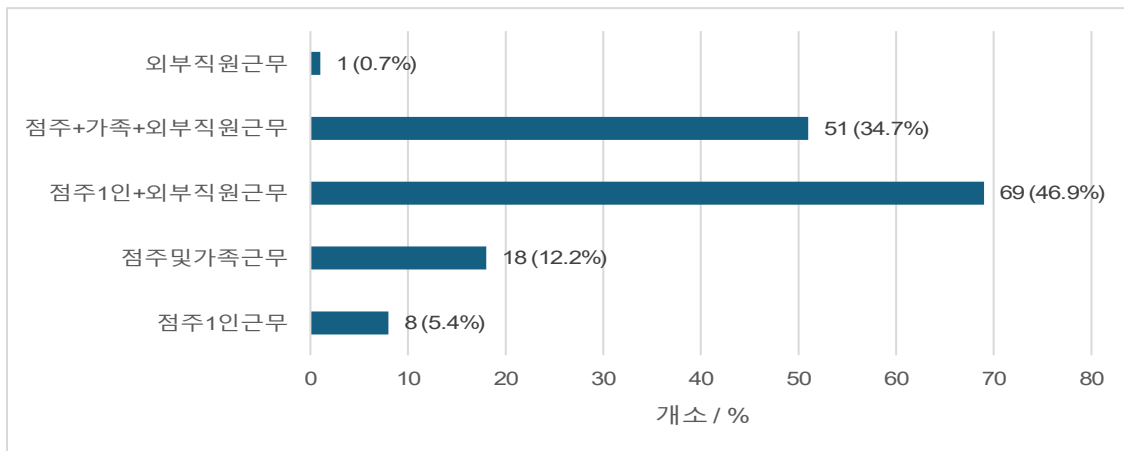
- 조사 참여 점주(가족)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34.2%이며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55.4%로 거의 1/2을 넘고 있다.

2. 가맹점 운영 실태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 1주일을 기준으로 조사 참여 점포의 근무형태를 보면 26개소(17.6%)가 점주, 또는 점주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점포이다.
- 외부 직원으로만 운영되는 점포는 1개소였으며, 81.6%의 점포는 점주(가족) + 외부 직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8] 점포 운영형태



- 조사 참여 점포에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단시간 노동자) 총수는 514명이며 평균은 3.5명이다. 전년도 조사에서 점포 근무 외부 직원 평균은 4.36명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약간 감소했다.
- 조사 참여 점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에는 평균 3.5명이, 커피점은 4.2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평균 고용인원이 가장 큰 업태는 기타이다.

[표 2-31] 세부 변수별 단시간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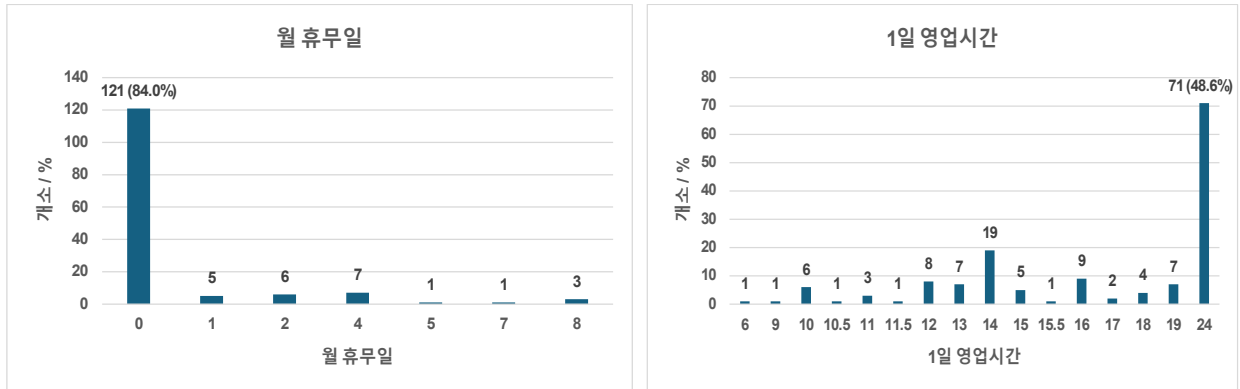
구분		노동자 수	구분		노동자 수
소유형태	자가	2.36	업태	편의점	3.48
	월세	3.66		커피점	4.17
	전세	6.00		햄버거점	3.50
	보증부월세	3.49		피자점	0.43
	본사소유	3.74		제과점	2.60
	기타	8.00		기타	5.00
이력	1년이하	3.41	가맹형태	가맹점	3.55
	3년이하	3.68		직영점	3.60
	5년이하	3.74		미가맹	1.00
	5년초과	3.68	전체	3.5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인지도를 보면 132개소(89.8%)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15개소(10.2%)는 몰랐다고 밝혔다.
- 업태별로 몰랐음 비율을 보면 편의점은 9.7%, 커피점은 5.6%, 햄버거점은 25.0%, 피자점은 42.9%, 제과점과 기타에서는 0%이다.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 월 평균 휴일 수를 보면, 121개 점포(84.0%)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운영시간을 보면 조사 참여 점포의 48.6%, 71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각각 89.5%, 45.7%였다.

[그림 2-9] 월 휴무일 및 1일 영업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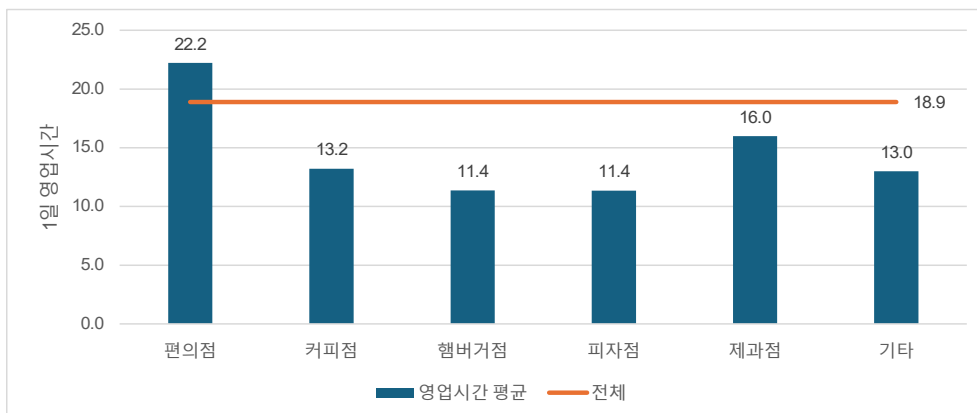
- 업태별로 월 휴일 수를 보면, 휴일 수 '0' 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제과점과 기타이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88.0%에 이르고 있다.

[표 2-32] 프랜차이즈 업태별 월 평균 휴무일

구분	0일	1일	2일	4일	5일	7일	8일
편의점	88.0%	2.2%	3.3%	3.3%	-	1.1%	2.2%
커피점	82.4%	5.9%	2.9%	5.9%	2.9%	-	-
햄버거점	25.0%	25.0%	-	25.0%	-	-	25.0%
피자점	57.1%	-	28.6%	14.3%	-	-	-
제과점	100.0%	-	-	-	-	-	-
기타	100.0%	-	-	-	-	-	-
전체	84.0%	3.5%	4.2%	4.9%	0.7%	0.7%	2.1%

○ 업태별 하루 영업시간 평균을 보면 편의점이 가장 길며 햄버거점과 피자점에서 가장 짧다.
 - 1일 영업시간 평균을 보면 편의점 > 제과점 > 커피점 순서로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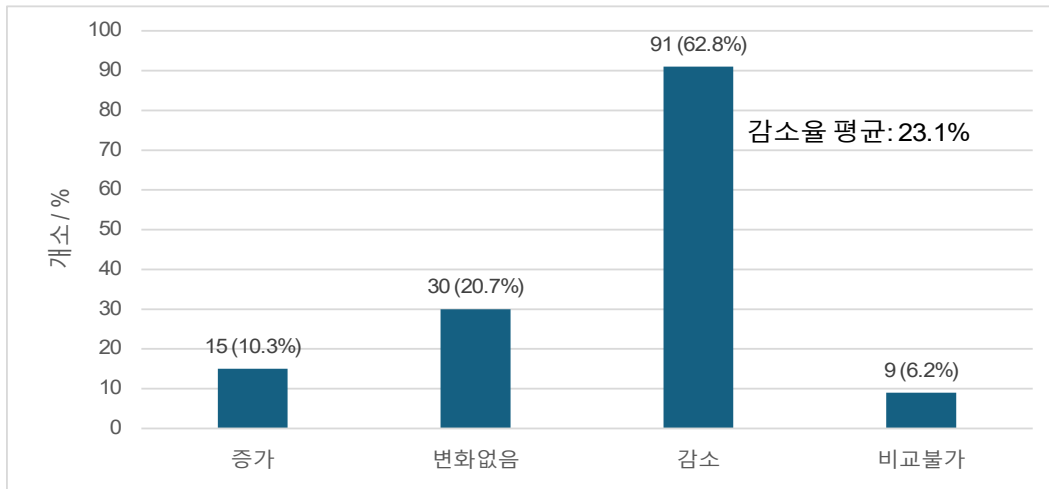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3) 매출 현황

○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점포 매출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했다’가 15개소, ‘감소했다’가 91개소, ‘변화 없음’이 30개소이다. ‘비교 불가’로 응답한 점포는 9개소이다.

[그림 2-11] 1년 전 대비 매출 현황



- 전년도 조사에서는 증가했다는 비율은 12.4%, 감소했다는 점포는 60.0%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증가했다는 비율은 낮아졌고, 감소했다는 비율은 약간 높아졌다.
-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힌 점포의 매출 감소율 평균은 23.1%이다. 전년도 조사에서 해당 비율은 23.3%로 올해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피자점, 편의점에서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점포 이력에서는 3년 초과~5년 이하에서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 가맹형태에서는 순수·위탁 가맹점에서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표 2-33]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구분	증가	변화없음	감소		비교불가	
			감소율			
사업장소 유형	자가	7.1%	21.4%	71.4%	26.1%	-
	월세	5.9%	26.5%	58.8%	21.4%	8.8%
	전세	-	-	100.0%	20.0%	-
	보증부월세	14.9%	18.9%	62.2%	21.8%	4.1%
	본사소유	-	21.1%	63.2%	29.0%	15.8%
	기타	100.0%	-	-	-	-

구분		증가	변화없음	감소		비교불가
					감소율	
이력	1년이하	18.5%	14.8%	33.3%	22.3%	33.3%
	3년이하	12.2%	31.7%	56.1%	19.0%	-
	5년이하	11.1%	18.5%	70.4%	28.3%	-
	5년초과	5.4%	10.8%	83.8%	22.4%	-
업태	편의점	2.2%	19.4%	71.0%	23.2%	7.5%
	커피점	26.5%	29.4%	38.2%	21.3%	5.9%
	햄버거점	25.0%	25.0%	50.0%	20.0%	-
	피자점	14.3%	-	85.7%	30.3%	-
	제과점	20.0%	20.0%	60.0%	13.3%	-
	기타	50.0%	-	50.0%	20.0%	-
가맹형태	가맹점	12.1%	20.2%	60.5%	23.5%	7.3%
	직영점	-	26.7%	73.3%	20.5%	-
	미가맹	-	50.0%	50.0%	-	-
전체		10.3%	20.7%	62.8%	23.1%	6.2%

○ 매출이 감소한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직원 수 감소 > 직원 근무시간 감소 > 영업시간 조정’ 순서였으며, 2순위에서는 ‘직원 근무시간 감소 > 직원 수 감소 > 정부지원책 활용’ 순서로 나타났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에서도 직원 수 감소와 직원 근무시간 감소가 주 대응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외부 직원(단시간 노동자) 수와 근무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맹 계약하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점포 특성상 매출 감소 대응 방법에 제약이 있기에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2-34] 매출 감소 대응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10	12.0	3	5.1	13	17.1
본사의 간접비 지원	7	8.4	5	8.5	12	16.9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6	7.2	-	-	6	7.2
영업시간 조정	10	12.0	6	10.2	16	22.2
직원 수 감소	25	30.1	13	22.0	38	52.2
직원 근무시간 감소	12	14.5	14	23.7	26	38.2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정부 지원책 활용	3	3.6	11	18.6	14	22.3
제품 가격 인상	-	-	1	1.7	1	1.7
기타	10	12.0	6	10.2	16	22.2
전체	83	100.0	59	100.0	142	200.0

- 한편 주관식으로 기입된 ‘기타’ 항목 1순위에서는 ‘가격 할인’, ‘배달 확대’, ‘대출받음’ ‘폐업예정’ 등을 언급하였다.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 지난 1년간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을 2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이 첫 번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인력관리’ 가 첫 번째였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 전체적으로 보면 동종점포로 인한 매출 부진, 구인 및 인력관리 어려움, 임대료 부담, 가족 간 유대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2-35]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가맹수수료부담	23	17.3	5	4.5	28	21.8
동종점포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48	36.1	12	10.9	60	47.0
인력관리	30	22.6	22	20.0	52	42.6
가맹본부의마케팅지원부족	3	2.3	4	3.6	7	5.9
고객응대	4	3.0	4	3.6	8	6.6
유대시간부족	6	4.5	21	19.1	27	23.6
계약이행부담	3	2.3	12	10.9	15	13.2
임대료	11	8.3	24	21.8	35	30.1
기타	5	3.8	6	5.5	11	9.2
전체	133	100.0	110	100.0	243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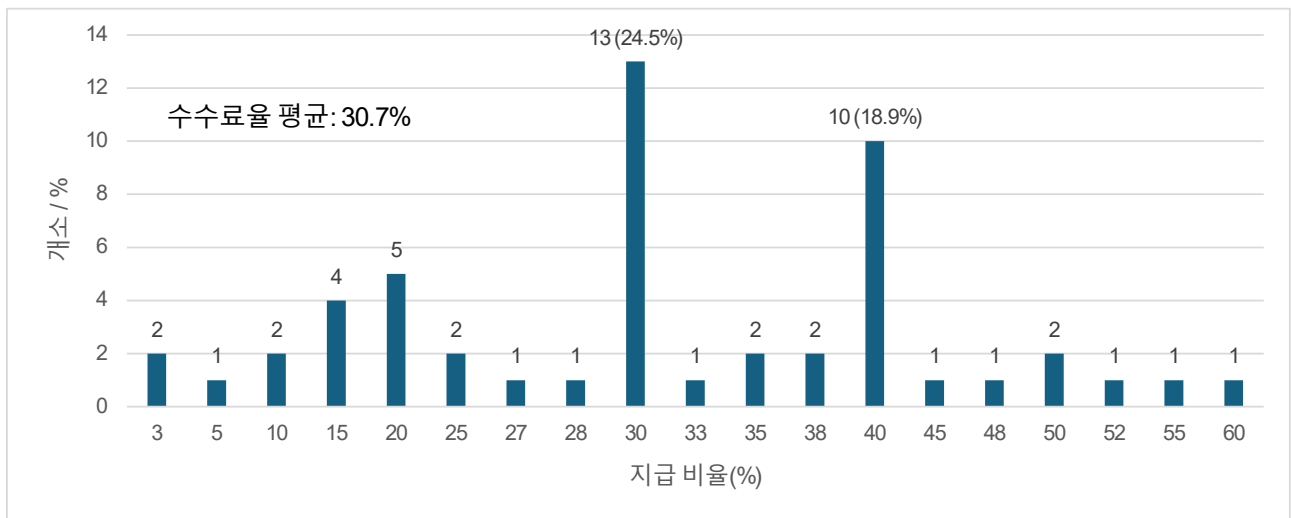
○ 가맹본부(본사)에 로열티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 중 124개소(87.3%)가 ‘지불하고 있다’ 고 밝혔으며, 18개소(12.7%)가 ‘지불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5개소는 무응답 하였다.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한다. 가맹비, 시설비, 물류 마진, 그리고 로열티 등이다. 물류마진과 더불어 로열티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점포 투자 형태와 매출총 이익 수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²⁾.

○ 월 로열티 수수료 지급 비율을 밝힌 점포는 53개소이다. 매출총이익 대비 30%를 지급한다는 점포가 13개소(24.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40.0%가 10개소(18.9%)였다.

- 평균 수수료율은 30.7%로 전년도 26.8%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림 2-12] 지급 로열티 수수료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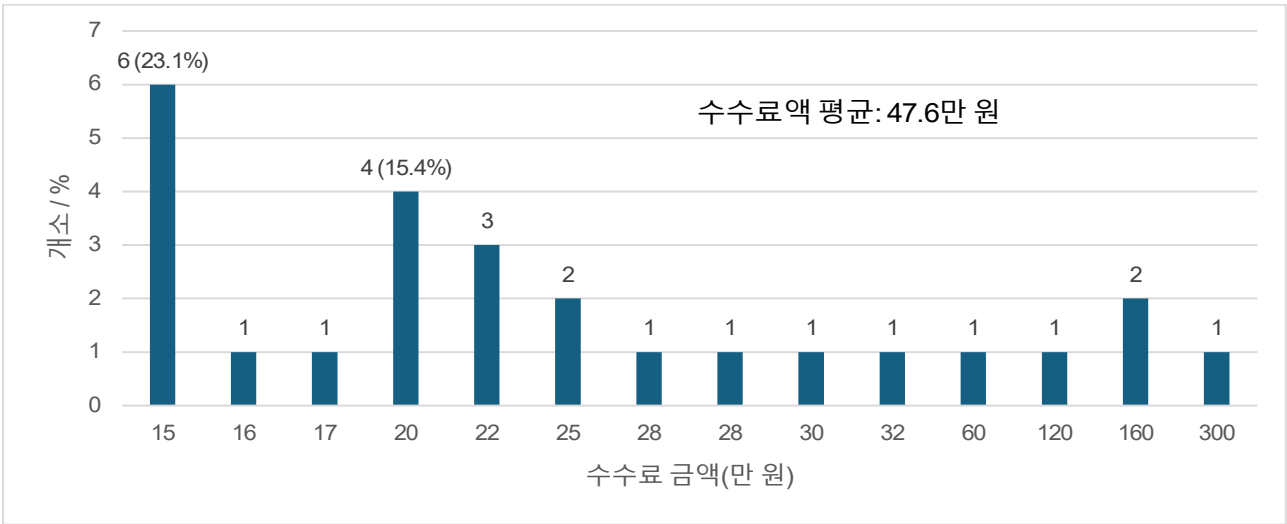


○ 월 수수료 지급 금액을 밝힌 점포는 26개소이다.

- 금액은 15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만 원, 22만 원 순서였다. 평균 월 수수료 액은 47.6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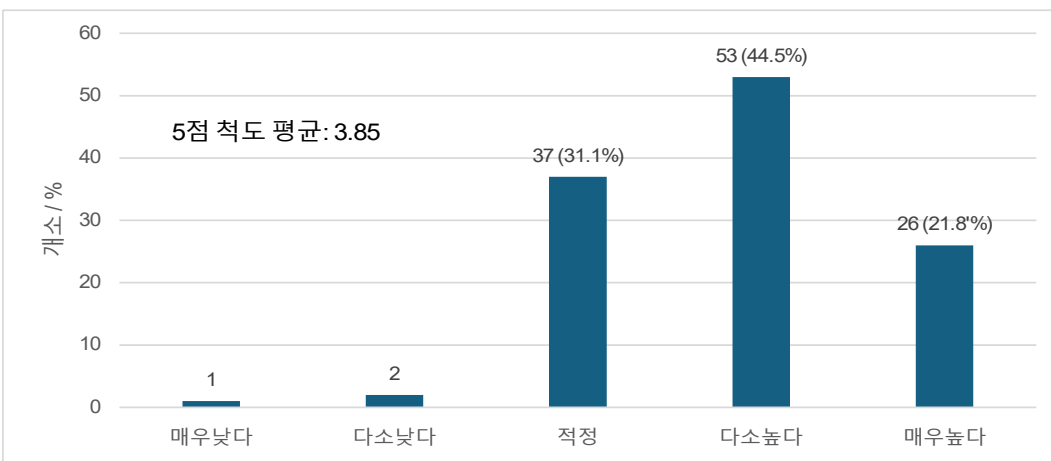
2) 월 매출 총이익이 낮으면 수수료율도 낮아지며, 매출총이익이 많을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지도록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점포 투자 형태, 즉 순수가맹인가 위탁가맹인가에 따라라도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13] 지급 수수료액 분포



- 수수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한 결과, ‘높다(매우 높다 포함)’ 는 비율이 66.4%이다. 전년도 62.7%에서 약간 높아졌다.
-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85점으로 ‘다소 높다’ 에 가까우며 전년도 3.76점 대비 약간 높아졌다. 수수료 수준 인식을 밝힌 점포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포 124개소 중 119개소이다.

[그림 2-14] 로열티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소유형태에서는 본사소유와 월세에서 5점 척도 점수가 더 높다. 그만큼 로열티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점포 이력에서는 3년 초과-5년 이하에서 점수가 높으며, 업태에서는 피자점과 편의점에서 높다.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높다.

[표 2-36] 세부 변수별 로열티 수준 인식(5점 척도)

구분		5점 척도 평균	구분		5점 척도 평균
소유형태	자가	3.64	업체	편의점	3.99
	월세	3.93		커피점	3.50
	전세	3.00		햄버거점	3.00
	보증부월세	3.84		피자점	4.00
	본사소유	4.00		제과점	5.00
이력	1년이하	3.54	가맹형태	가맹점	3.81
	3년이하	3.80		직영점	4.08
	5년이하	3.96		미가맹	4.00
	5년초과	3.93	전체	3.85	

5) 가맹점 본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 가맹점 본사에 대한 요청 사항을 2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가 40.0%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으며, 2순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13.6%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 1순위와 2순위 합산한 비율로 보면 가맹비/로열티 인하 > 카드 수수료 인하 >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순서로 나타났다.

[표 2-37]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상담/교육	2	1.6	1	0.9	3	2.5
세무상담/교육	7	5.6	2	1.8	9	7.4
가맹비/로열티인하	50	40.0	10	9.1	60	49.1
카드수수료인하	14	11.2	15	13.6	29	24.8
최저수익제도입	4	3.2	7	6.4	11	9.6
근접출점제한	9	7.2	6	5.5	15	12.7
의무휴일제도입	7	5.6	9	8.2	16	13.8
1일영업시간제한	4	3.2	8	7.3	12	10.5
대체근무지원	1	0.8	4	3.6	5	4.4
직원소개/알선	2	1.6	9	8.2	11	9.8
불공정거래관행개선	12	9.6	14	12.7	26	22.3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간접비지원확대	6	4.8	8	7.3	14	12.1
휴폐업시전업지원	2	1.6	7	6.4	9	8.0
건보등사회보험료지원	1	0.8	5	4.5	6	5.3
점주협의회간 정례협의 제도화	3	2.4	2	1.8	5	4.2
지역화폐확대			1	0.9	1	0.9
기타	1	0.8	2	1.8	3	2.6
전체	125	100.0	110	100.0	235	200.0

○ 동일 항목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을 파악한 결과, 1순위 첫 번째 요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접출점제한, 의무휴일 도입,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높았다.

- 2순위에서는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 카드 수수료 인하 > 지역화폐 확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치로 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확대, 근접출점 제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2-38]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상담/교육	5	4.2	2	2.1	7	6.3
세무상담/교육	2	1.7	4	4.2	6	5.8
가맹비/로열티인하	6	5.0	5	5.2	11	10.2
카드수수료인하	27	22.5	13	13.5	40	36.0
최저수익제도입	5	4.2	1	1.0	6	5.2
근접출점제한	10	8.3	10	10.4	20	18.8
의무휴일제도입	10	8.3	8	8.3	18	16.7
1일영업시간제한	4	3.3	1	1.0	5	4.4
대체근무지원	3	2.5	2	2.1	5	4.6
직원소개/알선	5	4.2	7	7.3	12	11.5
불공정거래관행개선	-	-	2	2.1	2	2.1
간접비지원확대	7	5.8	3	3.1	10	9.0
휴폐업시전업지원	6	5.0	5	5.2	11	10.2
건보등사회보험료지원	10	8.3	16	16.7	26	25.0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점주협의회간 정례협의제도화	1	0.8	4	4.2	5	5.0
지역화폐확대	12	10.0	11	11.5	23	21.5
기타	7	5.8	2	2.1	9	7.9
전체	120	100.0	96	100.0	216	200.0

- 전체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를, 경기도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되게 요구하고 있다.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절 요약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91.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92.8%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 교부 비율이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지만, 10명 중 1명(9.8%)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간 시급액 평균은 9,927.6원이며, 야간 시급액은 10,350.6원이다. 주·야간 시급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34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노동자 1,774명 대비 1.9%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치는 2020년에는 15.7%로 높았지만 2021년에는 4.9%,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2년 4.1%, 2023년 2.7%, 2024년 1.9%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을 보면 3.1%, 55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받음 비율까지 합산하면 30.2%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법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확대는 향후 권익서포터즈 사업에서 핵심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주 15시간 이상인 667명을 대상으로 하면 받음 비율은 62.7%(전년도 61.1%)로 높아진다. 하지만 못 받음 비율도 22.0%(전년도 26.7%)에 이르며, 해당없음까지 포함하면 24.4%(전년도 27.6%)이다. 주 15시간 이상자 4명 중 1명 꼴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조사 참여자 중 주 15시간 이상자 비율은 37.6%로 전년도 41.0%에서 약간 하락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미만 형태로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성희롱 및 폭언, 폭력 경험 유무를 보면 성희롱은 23명(1.3%), 폭언, 폭력은 163명(9.2%)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 주체는 거의 대부분 손님이다.
 - 일 4시간 이상 근무자 중 휴게와 관련해서는 39.1%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없으며, 392명(23.8%)은 휴게시간에 일을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이 많아서 실제 임금 미지급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장 개인사업자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 단시간 노동자 중 292명, 16.5%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 지위인 것으로 밝혔다.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이라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잘 모름과 무응답 비율이 높기에 실제 가짜 3.3 노동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면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 프랜차이즈 점주 조사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보면 1순위에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를,

2순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 가맹비·로열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높음’ (‘매우 높음’ 포함)의 비율이 66.4%에 이르고 있다.
-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을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치로 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확대, 근접출점 제한 순서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절 정책 제언

○ 최우선적으로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확대가 필요하다.

- 집단적 이해대변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외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이런 점에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권익서포터즈의 인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대상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나아가 비서비스업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내용 또한 단시간 노동자 대상에서 프랜차이즈 점주, 특히 편의점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는 1인 자영업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법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 가맹 본부와 협의를 통해 △ 편의점 개설·계약 갱신시 일정 시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노동법제 변화를 공지하도록 하며 △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안심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예 :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부천시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 지역 내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시간 노동자가 노동시장 내 미조직·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도내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 이런 점에서 이미 설립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부천시 미조직·취약노동자의 이해대변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올해 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위장 개인사업자 실태와 관련해서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비율이 16.5%로 나타났다. 점주의 불법·탈법적인 고용관행을 계도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아울러 편의점(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이지만, 편의점 점주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종속성’이

뚜렷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³⁾.

- 우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고충처리 창구를 개설해 지역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고충 및 불만을 접수·분류·유형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가맹본부-점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를 보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맹 본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다.
 - 아울러 필요시에는 가맹본부·지역본부에 이를 전달하고 부천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산하 관련 기구에도 문제 제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활성화 독려 및 부천시·경기도와의 정기적인 협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대부분의 가맹본사는 자사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형태의 모임을 구성해 운영중으로 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통 및 협의 창구로 활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홍보, 또는 소통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가맹본부 차원의 문제 발생시에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voice)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되풀이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부천시, 나아가 경기도 차원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가맹점주별 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 수렴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방향·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김철식 (2014),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 : 편의점을 중심으로', 박제성의,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1)』, 한국노동연구원.